



### 광주경제 뉴 엔진 '투자유치기업'이 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보조금, 저렴한 산업단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바로 막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 때문이다. 게다가 유치기업들은 지역 내 자생기업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관련 학문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학·관의 지속적인 연계·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 산업을 창출하는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산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최근 이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을 찾아 이들의 효과와 투자유치기업을 더 늘리기 위한 과제 등을 살펴본다.

# 금융위기에도 고용 늘려 지역경제 회복 이끌어

## 1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외지에서 광주로 동지를 옮긴 기업은 모두 693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2조9천505억원을 투자했고, 그로 인해 2만2천622명의 지역민을 신규 고용하고 있다. 지역 내 토착기업들도 물론 선전하고 있지만, 산업구조 개편 속에 구조조정이나 자동화의 영향으로 고용인원이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경제의 투톱 중 하나인 기아차 광주공장만 해도 10년 전보다 생산대수는 급증했으나, 인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최근 투자유치기업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주력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지디지털(주)에서 일하고 있는 40~50대 주부사원들.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단순 노무직보다 평균임금도 높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지디지털은 광주로 본사를 이전한 지 4년째를 맞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kwangju.co.kr

## 7년새 693개업체 2만2천여명에 새 일터 임금 만족도 높고 근로자 교육에도 열성

사인 '노바스이즈'도 이 지역의 또 다른 대기업인 엘지노텍과의 협력이 잘 이뤄질 경우 광주로 이전해올 방침이다. 이지디지털의 고용인원은 모두 87명. 이 중 70%는 단순조립을 하는 주부들이며, 30%는 관리 및 영업직이다. 광주 본사 창립멤버인 김춘임(46)씨는 "하루 평균 8~10시간씩 일하며 매달 150여 만원의 임금을 받고, 간혹 성과급도 있다"며 "회사 정년은 60세까지이지만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

지 일을 해도 된다고 해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식당 허드렛일, 가사 보조 등이 아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직장인이 된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선소나 반도체 공장 등의 플랜트를 생산하는 삼성스텐레스상공(주)도 3년 전인 2006년 인천시 남동공단에서 광주 평동산단으로 이전했다. 전체 직원 60여 명 중 60%를 지역에서 채용했으며, 내내에도 20명 이상의 직원을 더 고

용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강현준(60)씨는 "특수용 접을 하고 있는데, 2년 전 정년퇴임했다가 회사에서 다시 불러 일하고 있다"며 "임금 수준도 만족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가족들까지 회사의 팬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올 상반기 투자유치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51명, 최대 종사자 수는 450명에 이른다.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응답업체 129곳 중 54%인 69곳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감소는 18%인 23곳에 불과해 광주 유치 및 투자기업들이 '알짜배기'임DMF 다시 한번 증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두바이 충격' 벗고 X-마스 랠리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 매수 접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부분의 시장지표들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다는 점은 시장이 얻은 소득이다. 미국 증시는 향후에도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세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회복세의 속도가 증시에 있어서도 최대 관건이며, 금주에는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닷새 연속 반등하며 6.6% 상승해 1,620선을 회복했고, 두바이 사태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의 상향돌파까지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두바이 사태 이전에 국내 증시에 나타난 여타 해외의 증시 대비 차별적인 약세흐름의 주된 요인인 더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경기 부담, 부진한 거래규모 등은 사실상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난주 후반에 목격된 프로그램 차익분에서의 대규모 매수세 유입은 지수의 연속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주된 변수로 작용했다.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금주 목요일에 예정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도 연계되어 긍정적인 변수로의 작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만기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는 당일 현물 및 선물시장의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12월 만기일의 경우 배당 변수의 영향으로 매수우위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금주 프로그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1월의 등락장세 속에서 크게 확대되었던 선물시장에서의 극심한 장중 변동성이 최근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수흐름에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구도 속에서 지난주에 나타났던 급반등은 일단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저항선의 돌파 및 지수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으로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격적인 추가상승은 실적모멘텀의 수반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금주는 호전된 심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관련 수급구도가 도와준다면 낙폭과대주의 메리트는 금주에도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전망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es a logo with a horse and rider,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Advertisement for '매력한우' (Attractive Beef). Features a logo with a cow and text: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Attractive Beef, Delicious Direct Sales).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영일매력한우'.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or financial service. Features a house illustration and text: '만독주택' (All-inclusive housing), '기성시공' (Pre-constructed), '일기비 50~70% 정부 무임차원' (50-70% government free hous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신한금융투자'.